무수히 흩어지는 순간들 | Scattering Moments

2025. 5. 17. – 6. 21.

전진표 | Jinpyo Jun

1. 공사장

길을 거닐다 보면 종종 가림막이 쳐진 공사 현장을 지나가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벽 너머로부터 들리는 소음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먼지에 숨을 참은 채 걸음을 빨리하거나, 좁아진 임시 통행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이를 의식해 몸을 살짝 비틀어 걷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다음 번엔 건너편 길로 지나 와야지'라는 메모를 머릿속에 새겨 둘지도 모른다. 어느 날 같은 길을 지나다 가림막이 걷힌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새로 지어 진 멋진 건물, 익숙한 자리에 바뀌어 들어온 매장, 말끔히 보수가 끝난 공간의 일부, 혹은 드디어 시작된 팝업 행사 등에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다. 무언가가 지어지고, 고쳐지고, 대체되는 과정에는 주목을 하지 못하고 완성된 결과물에만 시선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전진표 작가의 관심은 줄곧 완결된 이미지가 아닌, 진행 중인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장면들에 있었다. 어린 시절 엑스포나 박람회 등의 전시 디자인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작업 현장에 자주 따라가 접한 환경의 영향인지, 그의 눈은 늘 가려진 벽 너머 혹은 틈 사이로 얼핏 보이는 장면들, 그리고 덮개나 시선을 가로막는 여러 부자재들이 덧대어지거나 겹쳐진 모습들을 향했다.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기억과 생각은 지금의 작업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스스로 "과정으로서의 회화"라 부르는 일련의 시도들을 통해 작품이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주되는 시각적 사건이기를 소망한다. 때문에 이번 전시의 주를 이루는 전시장 중심부에 길게 펼쳐진 신작들과 마주하기에 앞서 거쳐가게 되는 갤러리 입구의 공간은 단순히 완성된 작품으로 건너 뛰기 위해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공사장'이 아니다. 나무 판넬 뒷면이 겹겹이 쌓이고 늘어서 형성된 '가림막'은 회화를 구성하는 재료이자 장면의 일부로 기능한다. 관람객은 이를 서서히 지나가며 각자의 시선으로 저마다 다른 '처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입구에 처음 섰을 때 시야에 얼핏 들어오는 전시장 일부의 모습부터, 한 발자국씩 내딛을 때마다 바라보는 장면은 모두에게 다 다를 것이다. 자신만의 전시 경험이 지어지는 '공사(私)장'인 셈이다.

2. 움직임

이번 전시는 한눈에 조망되지 않는다. 시작부터 끝까지 고정된 시점이 아닌 움직이는 시선을 전제로 한다. 크고 작은 사이즈의 그림들이 벽에 걸리거나 기대어지지 않고, 전시장 중앙에 길게 비규칙적으로 세워져 있다. 관람객은 각자의 시선의 높낮이, 걸음의 반경, 움직임의 리듬에 따라 겹겹이 서 있는 작품들 주위와 사이를 직접 거닐며 전시를 관람한다. 작품들은 서로를 가리거나 덮고 있으며, 어느 위치에서든 반드시 서로와 겹쳐 보인다. 이로 인해 '걷는 시선' 속에서 포개지고, 어긋나며,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의 조각들은 언제나 다르게 조합된다. 어느 하나의 장면도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누구도 작품 또는 전시의 전부를 한눈에 포착할 수 없기에, 하나의 장면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번 전시는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 쓰이게 된다.

전시장 중앙의 새로운 작업은 세 가지의 다른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together-apart/beside-between-among/in-out-inside-outside/before-after-beneath-above/behind-ahead/across-along-around/with-without/nowhere-somewhere-everywhere/here-there,

floating-drifting-sliding/flickering-blurred/fragmented-splitting-staggered/unfolding-repeating-immersed, hovering-traced-embedded/absent-vanishing-reappearing/swelling-fluid-fading/merging-splintering/emerging-connecting.

입식으로 배치된 구조 덕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회화의 전면 뿐만 아니라, 작품의 측면과 후면도 감상하게 된다. 각각의 제목은 캔버스 뒷면 나무 판넬에 기입되어 있으며, 제목 내 단어들 또한 불규칙적으로 작품 테두리에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소 긴 제목들로부터 이번 작업을 통해,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업관이 다시금 드러난다. "이 작업은 회화에서 시작하지만, 회화에 머물지 않는다"는 설명처럼, 캔버스 위에서 시작된 이미지들은 배치된 공간 속에서 분절되고 반복되며, 더 이상 '보는 것' 만으로는 다 닿지 않는 사건이 된다. 높고 낮은 작품들 사이로 고개를 기울이면서, 서로 다른 간격의 작품들 사이에서 몸을 비틀며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다가서면서, 내딛는 걸음과 경로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작품을 살피면서, 관람객은 비로소 회화를 '감각'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정해진 순서 없이, 고정된 시점 없이, 각자의 움직임에 따라 조합되고 분산되는, 유동적인 감각의 풍경이다. 그림과 그림 사이, 겹과 틈을 지나며 만들어지는 유동적인 장면들. 스쳐 지나가다 사라지는 이미지들. 다시 돌아와도 같은 자리에 같은 장면이 펼쳐지지 않는 이 전시의 경험은, 그 어떤 관람자에게도 동일할 수 없다. 《무수히 흩어지는 순간들 (Scattering Moments)》은 보는 이가 머무는 시간과 자리만큼만 존재하는 전시다.

3. 언어

전진표의 회화는 특정한 장면을 제시하지도, 어떠한 서사를 전달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번 작업들 역시 명확히 지시하거나 시사하는 내용 없이, 그저 작가의 작업관의 연장선이다. 때문에 이 전시를 아무런 설명 없이 접한 누군가는 단지 다양한 패턴과 간격,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색감의 이미지 조각들로만 인식할 수도 있다. 시각적인 이미지들의 파편, 혹은 스쳐 지나가는 흐릿한 잔상 정도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혹은 경험을 조금 더 명확히 형성하는 것은 결국 언어 아닐까. 전시장 중앙에 서 있는 작품들의 제목은 단어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단어는 하나의 특정한 장면을 단독으로 직접 묘사하거나 지시하진 않지만, 그 자체로 방향과 관계, 또는 사건의 상태를 암시한다. 이러한 단어들이 작품의 테두리 뿐 아니라, 입구의 '가림막' 상단에도 불규칙적으로 적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언어는 이번 전시에서 시각적 이미지들과 느슨하게 연결되며, 관람자의 내적 리듬과 사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처럼 언어는 시각적 인상이 흩어지고 설령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각자의 전시 경험을 관념적으로도 더 깊이 각인시킨다.

《무수히 흩어지는 순간들 (Scattering Moments)》은 그림이 보는 사람보다 먼저 말을 걸지 않기에, 각자의 시선과 경험이 서로 얽혀 흩어지게 되는 수많은 장면과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무수히 흩어지는 순간들이 전시를 관람하는 내내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단어들과 이어져, 어쩌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기억 속에 고이 간직되지 않을까.

전시 기획/서문 | 최재우